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열력'·'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의 한 장면

한국영화 '새해도 뜨겁다'

'그것만이 내 세상' 등 연초 기대작 BIG 4 출격

‘신과 함께’와 ‘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어느 때보다 뜨겁게 새해를 맞은 극장가가 그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한국영화 기대작 네 편이 출격 대기 중이다. 명실상부 최고 배우인 이병헌이 이미 관객을 만날 준비를 마쳤고, 제작진 극장을 준비하며 뒤늦었던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 새 작품을 들고 관객을 기다린다. 가장 성공한 한국 시리즈 영화로 평가받는 ‘조선명탐정’이 세 번째 편을 내놓고 출연하는 작품마다 성공시키며 승승장구 하고 있는 배우 강동원도 새 영화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병헌·윤여정·박정민 '그것만이 내 세상'

가족·시한부·장애·전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분명 익숙한 소재들로 조합해낸 작품이다. 이런 영화들은 흔히 '블리세 법칙'이라고 비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들었다놓기도 한다. 한때는 봉양캠프원까지 했지만 이제는 피물이 된 복서 '조하(이병헌)'는 이제 오갈 데도 없어진 신세다. 생활고에 허덕이던 그는 17년 만에 엄마 '인숙'(윤여정)을 우연히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동생 '진태'(박정민)와 함께 살게 된다. 배우들의 연기가 압도적이어서 알고도 당할 때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 그렇다. 이병헌·윤여정·박정민 세 주연 배우는 때로는 편하게 때로는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관객을 웃기고 울린다. 이야기는 뻔해도 잘치기 밀고 당기는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감칠맛나는 영화다. 17일 개봉

◇류승룡·심은경·정유미...연상호 감독 '열력'

영화 '열력'은 '부산행'으로 2016년 1000만 관객을 달성한(116만명) 연상호 감독의 새 영화다. 전작이 한국영화에서 흔치 않았던 좀비를 활용해 큰 성공을 거뒀다면, 이번 작품은 제목 그대로 열력(念力), 초능력을 소재로 삼았다.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한다는 평범한 줄거리이지만, 이야기꾼으로서 재능을 인정받은 연 감독이 또 어떤 흥미로운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행'에 이어 흥행 연타석 흥행을 칠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

◇정유미 '골든슬립버'

평범한 은행 경비원 '석현'(류승룡)이 어느날 갑자기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석현의 딸 '무미'(심은경)와 이웃들이 민사장(김민재)과 '홍상무'(정유미)에 의해 위기에 처하자 석현이 나선다. 데뷔 후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 정유미의 연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1월 중 개봉

◇설 연휴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2011) 478만명,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2015) 387만명. 이제 설 연휴에 '조선명탐정'을 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올해 설 연휴에는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감독 김석윤)이 찾아온다. 완성도에는 언제나 물음표가 붙는 시리즈이지만, 가족과 함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영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리즈를 통해 7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명민과 오달수는 2010년대 영화계 최고 콤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체 모를 불에 사람이 타 죽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탐정 '김민(김명민)'과 조수 '서필(오달수)'이 해결에 나선다.

두 사람은 사건 현장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의문의 여인(김지연)을 추적하며 실마리를 찾는 도중 거대한 비밀과 마주한다.

김명민·오달수·김지연과 함께 김범·이민기 등이 출연한다. 2월 중 개봉.

◇강동원 '골든슬립버'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배우를 꼽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지 않을까. 바로 강동원이다. 그는 '군도민란의 시대'(2014) '검은사제들'(2014) '검사의 집'(2016) '가려진 시간'(2016) '마스터'(2016) '1987'(2017) 등 장르·캐릭터 불문 말 그대로 종합형진 활약 중이다.

새 영화 '골든슬립버'(감독 노동석) 또한 스타성과 연기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강동원의 출연만으로 기대를 갖게 하는 작품이다.

일본 작가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이번 작품은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평범한 택배 기사가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스릴러물이다.

강동원·한효주·김의성·김성균·김대명·유재명 등 출연 배우들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연초 개봉 예정.

/뉴시스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 첫 승 신고... 김시우 '톱10'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압도적인 스코어로 2018년 첫 승을 장식했다.

존슨은 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플라타이온코스(파73·7452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3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 보기 1개로 8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존슨은 2위 존 램(스페인·16언더파 278타)을 무려 8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2월 19일 첫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존슨은 자신의 한 시즌 최다인 4승을 쓸어 담으며 출근 1위를 지켰다.

작년 10월 시즌 첫 대회로 출격했던 WGC HSBC 챔피언스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도의 부진을 다 잡은 우승을 놓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날 7타를 몰아치며 2위에 2타 차 단독 선두에 오르며 시즌 첫 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존슨은 최종일 거침없는 질주를 하며 일찌감치 우승을 예약했다.

존슨은 3, 5, 6, 9번 홀에서 버디 4개를 속이내며 질주했다.

후반 11번 홀(파8) 티샷을 범격에 빠뜨리는 실수로 1타를 잃었지만 12번 홀(파4)에서 드라이버로 무려 430



야드를 날려 보내며 이글을 낚아 승분위기를 이어갔다. 14~16번 홀 3연속 버디로 2위와 격차를 더욱 벌리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최대 40야드가 넘는 장타를 뽐내면서도 페어웨이를 지킨 존슨은 날카로운 아이언 샷으로 80%가 넘는 그린 적중률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지난해 4승을 거두는 동시에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지만 5승을 거둔 저스틴 토머스(미국)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겼던 존슨은 챔피언들의 향연인 '왕중왕전'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남버 1'의 자존심을 지켰다.

2008년 데뷔 첫 승을 시작으로 11년 연속 1승 이상을 거두는 꾸준함과 파

시하며 봉산 17승째를 수확했다.

2016년 6월 'US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3승, 지난해 4승 등 약 19개월 동안 8승을 쓸어 담는 괴력을 발휘했다. 2년 연속 이 대회에 출전한 김시우(23·C대한통운)는 최종일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81타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 1타를 줄이는데 그치며 공동 12위까지 떨어졌던 김시우는 마지막 날 집중력을 발휘하며 순위를 끌어 올려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CFL 클래식'에서 3위를 한 데 이어 시즌 두 번째 '톱10'을 하며 2018년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지난해 이 대회에 첫 출전한 하위권인 공동 30위에 머물렀던 김시우는 두 번째 출전 만에 '톱10'에 오르며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17년 유러피언 투어를 강타한 램이 최종일 4타를 줄이며 2위를 1타를 줄이는데 그친 하만은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일본 남자골프 강관 마쓰야마 히데키는 7타를 줄이는데 몰아치기로 14언더파 공동 4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2위 조던 스피스(미국)는 12언더파로 김시우 바로 앞에 위치했다. '디펜딩 챔피언' 토머스는 3라운드까지 부진을 털고 6타를 줄였지만 공동 22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평창동계올림픽 G-30 불꽃축제 13일 개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30일 앞두고 올림픽 열기와 감동을 먼저 맞는 대규모 불꽃축제가 오는 13일 열린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소양강스카이워크 일원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G-30 춘천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동계올림픽 홍보,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

식전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는 밴드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어 오후 5시30분에 시작하는 본행

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과 감동이 주는 '올림픽'을 4막의 공연 형태로 풀어낸다.

불꽃은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앞 호수에서 발사된다.

불꽃 관람 장소로 신사우동 두미르 아파트 뒤편, 소양교, 소양강스카이워크 앞, 평화공원 수변이 제공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춘천대교 입구에서 상중도로 이어지는 제방도로는 관람이 통제된다.

주 행사장 동계올림픽 체험존에서는 올림픽 가상현실(VR),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즐기는 올림픽 게임, 올림픽

물발퀴즈 등을 즐길 수 있다. 푸드존에서는 간단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한다.

행사준비로 1월1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소양강스카이워크 앞 삼거리에서 근화동 평화공원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 안내 인력이 배치된다.

시는 의자를 비롯한 대규모 관람 인프라로 극한의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차량은 인근 캠프페이지, 봄내체육관 일원, 삼천동 수변공원 등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가능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포항 스틸러스, 국대정 영입

포항 스틸러스가 8일 전북 현대로부터 최측 풀백 국대정(23)을 영입했다.

국대정은 180cm 70kg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한다.

2017년 전북에 입단해 리그 출전 경험은 없지만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능력과 공수를 넘나드는 활동량을 지닌 유망주라는 평가다.

신선과 시절부터 수비능력과 공격력

을 모두 갖춘 수비수로 인정받은 국대정은 각급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연령별 대표에 꾸준히 선발됐고, 최근 발표된 U-23 대표팀에도 승선했다.

포항은 국대정의 합류로 골키퍼 강현무, 최전방 공격수 이근호까지 U-23 대표팀의 공수 핵심을 모두 보유 U-



23 의류출전 규정에서 한층 여유롭게 됐다. 국대정은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대회가 종료되는 이달 말 팀에 합류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